

# 목 차

<b>I. 사업의 개요</b>	<b>3</b>
<b>II. 부문별 사업실적</b>	<b>9</b>
1. 경제계 대표활동 및 회원교류사업 활성화.....	11
2.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	17
3. 국제협력 활동의 다변화 .....	26
4. 중소기업 지원 확대 .....	28
5. 온라인 정보제공 및 정보화 지원 활성화 .....	31
6. 자격검정사업의 지속적 개선 .....	33
7. 인력개발사업의 내실화 .....	34
8. 유통물류사업의 확대 발전 .....	37
9. 지속가능경영 확산 지원 .....	38
<b>III. 유형별 사업실적</b>	<b>41</b>
1. 상공진흥행사 .....	43
2. 세미나, 간담회 .....	44
3. 조사/연구, 건의 .....	53
4. 국제협력사업 .....	58
5. 정보화 사업 .....	62
6. 상공회 사업 .....	64
7. 국가기술 자격검정사업 .....	69
8. 산업인력 개발사업 .....	71
9. 유통물류사업 .....	74
10. 지속가능경영 지원사업 .....	76
<b>IV. 전국상공회의소 주요 사업실적</b>	<b>79</b>



# I. 사업의 개요



성공 비즈니스와 함께하는  
최고의 경제단체



## I. 사업의 개요

대한·서울상공회의소는 “회원사업 및 서비스의 내실화”와 “성과중심 조직문화 조성”을 2006년도 사업목표로 정하고, “경제계 대표 활동 및 회원 네트워킹 활성화, 회원 이익대변 및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 및 건의사업의 강화, 회원기업의 글로벌 비즈니스 지원 확대, 온라인 정보 제공 및 중소기업지원 강화, 자격검정 및 인력개발사업의 확대 발전”을 중점추진과제로 설정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였다.

2006년 초에는 제19대 의원 및 임원을 새로 선출하였으며 2005년 11월 대한·서울상공회의소 회장에 추대되었던 손경식 회장을 다시 회장으로 선출하였다. 손경식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회원들의 뜻을 대변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에 충실하는 한편,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4월에는 대내외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회원기업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조직을 대폭 개편하였다. 조사본부를 조사1본부와 조사2본부로 확대 개편하여 정책개발 기능을 강화하였고, 기업애로 해소를 체계적으로 추진키 위해 기업애로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였다. 또한 통상 현안 및 해외진출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해외조사팀을 신설하였고, 감사팀을 신설하여 상공회의소 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하였다. 12월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상공회의소법을 개정하여 전국 상공회의소 운영 및 발전 기반을 마련하였다.

주요 사업실적을 살펴보면, 먼저 CEO 관련 사업 및 상공진흥사업을 적극 추진하였다. 최고 정책당국자와 국내외 저명인사를 연사로 초청, 총 20회의 CEO 간담회를 개최하여 연인원 3,500여명의 기업인이 참석하였다. 특히 3월에는 노무현 대통령의 특별강연을 개최하여 상공회의소 위상제고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그 외에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 카를로스 구티에레스 미국 상무부 장관, 스테파니 번즈 다우코닝 회장 등의 강연이 있었다.

1962년 이래 대한·서울상공회의소가 경제계를 대표하여 매년 개최하고 있는 신년인사회에는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계뿐만 아니라 정계, 학계, 언론계 및 주한외국사절 등 각 분야의 주요인사 1,000여명이 참석하였다. 또한 7월에는 제31회 최고경영자대회를 개최하여 회원기업 CEO들에게 경영능력을 배양하고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한편 제33회 상공의 날 기념식, 제12회 싱글PPM품질혁신 전진대회, 제13회 기업혁신대상 시

## I. 사업의 개요

상식, 제11회 한국유통대상 시상식 등의 상공진흥행사를 개최하여 우수기업과 모범상공인을 포상함으로써 기업의욕과 기업가정신을 고취하였다.

대한·서울상공회의소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조사·연구 및 건의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지난해 우리 경제는 수출이 3천억 달러를 돌파하는 성과가 있었지만 고유가와 원화강세 등으로 인해 수출여건이 전반적으로 악화되었고 대내적으로는 민간부문의 소비가 크게 위축되어 기업들이 경영활동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대한·서울상공회의소는 어려운 대내외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기업경쟁력과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경제관련 법·제도의 개선, 기업에 및 규제 해소, 친기업 분위기의 확산, 장기적인 성장기반 조성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상법, 노동관계법 등 기업경영에 큰 영향을 주는 법률의 제·개정 과정에 적극 대응하여 정부와 국회에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노사정대표자회의 등 정책결정기구에 직접 참여하여 기업의 입장을 적극 대변하였다.

경영현장의 애로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전국 상공회의소에 기업애로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콜센터, 홈페이지, 상담실을 통해 약 700건의 기업애로를 접수, 처리하였다. 또한 규제개혁과제 200여건을 발굴해 정부에 건의하고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핵심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활동도 전개하였다.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친기업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을 대상으로 500여회의 경제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윤리경영위원회와 기업사랑나눔봉사센터를 설치하여 기업의 윤리경영과 사회공헌 실천을 지원하였다.

한미 FTA에 대한 기업과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성공적인 협상타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50여회의 지역순회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특히 12월에는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이 한미 FTA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지지하고 국민의 협조를 호소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과 무역 및 투자의 확대를 위하여 다양한 민간 경제외교활동을 전개하였다. 인도, 베트남, 이태리, 스페인, 나이지리아 등 세계 각국에 총 18회에 걸쳐

경제사절단을 파견하였고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등의 통상외교활동을 지원하는 민간파트너로서 일익을 담당하였다.

베트남, 뉴질랜드, 루마니아 등과는 경제협력위원회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양국의 통상현안과 교류협력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였고 거래 및 투자상담회를 열어 양국 기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였다. 2006년 말 현재 대한·서울상공회의소는 41개 국가와 민간 경제협력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대한·서울상공회의소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사업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1,800여개 기업으로부터 병역지정업체 신청을 받아 974개 기업에 1,648명의 인력을 배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었으며, 우리기업의 품질경쟁력 제고를 위한 싱글PPM 품질혁신교육을 총 226회, 연인원 30,029명에게 실시하였다.

서울시 자치구별로 설립되어 있는 25개 상공회는 구청장, 세무서장 등 관내 기관장과 국회의원 등을 초청, 530여회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상공인들이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세무·회계·노무·무역·법률 등의 분야에서 13,000건의 경영상담과 600회의 실무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25개 상공회의 전체 회원수는 2005년말 35,309개사에서 2006년말 42,007개사로 대폭 증가하였다.

국내 최고의 기업정보 데이터베이스인 코참비즈는 3만개 비즈니스서비스 기업정보를 구축하였고, 회원간에 지식을 교류하는 지식멘토 서비스를 새로 개발하여 선보였다. 코참비즈는 2006년 말 현재 기업정보 31만개, 상품정보 160만개, 거래정보 54만개 등 방대한 DB를 인터넷으로 서비스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는 회원수는 21만여명에 이르고 있다. 한편 IT화콜센터는 중소기업의 정보화를 지원하기 위해 총 5,530개 기업에게 콜상담, 현장지원, CEO 경영자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자격검정사업은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등 총 32개 종목의 검정을 실시하였다. 2006년 전체 수험자수는 272만명이었으며, 이 중 상설검정 수험인원이 111만명으로 전년 대비 36.5% 증가하였다. 한편 중증 시각장애인, 재소자와 울릉도, 백령도 등 도서지역 수험생의 편의를 위해 현장방문 검정을 14회에 걸쳐 시행하기도 하였다.

## I. 사업의 개요

전국 8개 인력개발원은 정규과정 훈련생 3,778명을 비롯하여 총 20,831명의 산업인력을 양성하였으며 취업을 희망하는 수료생 전원이 취업에 성공하였다. 철저한 훈련생 지도와 현장중심의 교육훈련을 통해 훈련생의 중도탈락률은 8.0%에 그친 반면 수료자의 87.4%가 1개 이상의 국가 기술자격을 취득하였다. 또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부산, 인천, 광주, 경기 등 4개 인력개발원이 시행한 중소기업 직업훈련 컨소시엄사업에는 4,061개 기업이 참여하였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출연하여 1991년에 설립한 한국유통물류진흥원은 차세대 바코드인 무선인식(RFID)기술의 보급 및 확산을 위해 RFID 리더그룹 및 업종별 실무포럼을 구성, 운영하고 의류, 의약품, 수출입물류 등 3개 분야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하여 기술적 신뢰성을 검증하고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개발하였다. 또한 전자카탈로그 사업인 코리안넷(KorEANnet)에는 97만개의 신상품이 등록되어 한국을 대표하는 전자카탈로그DB로 자리매김하였고, 세계 각국과 상품정보를 교환하는 국가간 데이터동기화네트워크(GDSN) 사업도 시작하였다.

지속가능경영을 경제계에 확산하기 위해 2005년에 설립된 지속가능경영원은 환경단체와의 갈등으로 인해 각종 개발사업이 지연되고 기업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조사·연구보고서 발간, 세미나·간담회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 나갔다. 또한 날로 강화되고 있는 국내외 환경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환경컨설팅을 무료로 시행하고 지속가능경영 관련 교육을 전개하였다.